

시각장애학교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에 따른 음악수업 인식

조 윤 정*

강원명진학교

이 해 균**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 요 약 》

본 연구는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과 음악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전국시각장애학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은 보통수준 이상이였다. 그리고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고 맹학생이 저시력학생보다 높았다. 둘째, 학생들의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은 음악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집단이 더 높았다. 셋째, 학생들의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에 따른 인식은 참여집단은 '참여자의 흥미 및 적극적인 태도'가 높았고, 비참여집단은 '다양하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이 높았다. 음악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에 대해 참여집단은 '장애특성을 고려한 지도교사의 체계적인 수업'이 높았고, 비참여집단은 '학생들의 관심 및 적극적인 태도'가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시각장애학교, 음악특기적성교육

* 제1저자(yj701031@naver.com)

** 교신저자(gyunlee@daegu.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음악은 소리로 표현되는 예술로 예로부터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하고 순화시키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음악이 없는 우리의 생활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 막히는 각박함 그 자체일 것이다. 이렇듯 음악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인간의 정서함양과 감성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8)에서는 음악은 사람의 느낌과 생각을 소리를 통해 표현하고 향수하는 예술로, 예로부터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쳐왔으며, 사람은 음악활동을 통하여 미적 경험과 즐거움을 얻고 잠재된 음악성과 창의성을 계발하며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가능성과 삶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음악교과는 학생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음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음악성을 기르며 풍부한 음악적 정서를 함양하도록 체계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교과이며, 그 목적은 다양한 악곡 및 활동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 음악적 능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음악적 정서와 애호심을 함양하게 함으로써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생활화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의 다양한 음악체험은 음악적 기능을 발달시키고 음악활동의 폭을 넓히는데 있어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평생음악의 기반이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좋은 음악에 대해 배울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김지현, 2005). 학생들은 음악교육을 통해 음악을 바르게 이해하고, 음악을 여가에 활용할 수 있는 음악적 기능과 습관을 익힘으로써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평생 좋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음악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간은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음악을 활용하거나 즐기게 된다. 최근에는 다양한 예술 분야와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음악의 역할과 가치가 더욱 높이 인정되고 있다. 학교음악교육은 모든 국민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있는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인식시켜주며, 그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든지 간에 음악의 장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심어준다(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2008).

음악교육 과정에서 교과활동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음악특기적성교육은 공통의 흥미와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하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으로 자기실현 자기표현의 과정이며, 그 목표는 학생 개개인이 지닌 잠재적인 능력을 발견하여 적성에 알맞게 신장, 발전시키며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흥미를

유발시키고 창의성 신장과 자아실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시각장애교육에서 음악특기적성교육은 이러한 역할과 함께 장애극복의 의지를 고취한다는 또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시각 이외의 모든 잔존 감각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험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잠재적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하며 발견된 능력을 최대한 신장, 발전시킴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진로탐색과 진로준비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통합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육현실은 이러한 음악교육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발전적으로 확대하기에 역부족이며, 입시위주의 교육정책과 집중이수제 등으로 오히려 점점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스크를 통한 대중문화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은 대중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음악수업에 흥미를 잃게 가고 있다(손지연, 2005). 시각장애학교에서도 음악교육이 축소되고 그 역할을 잃어갈 때 학생들은 음악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교육적 혜택을 잃게 되며 자존감 형성이라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다.

뛰어난 청각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학생에게 음악은 가장 중요한 예술 활동(Lowenfeld, 1971)이며 일반학생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개인적인 성취감과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교과 중의 하나이다. 음악특기적성교육은 음악교과교육에서 채워줄 수 없었던 교육수요자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음악교육이 가지고 있는 필수적이고 유익한 역할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학교음악교육의 역할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과 음악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음악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음악특기적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내실화, 다양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과 음악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시각장애학교 초·중학생의 음악수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음악특기적성교육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위한 연구로서 그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둘째,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셋째,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음악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전국 12개 시각장애학교 초등과정 4, 5, 6학년과 중학과정 1, 2, 3학년 학생 중, 총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 중, 음악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102명(70%)이며,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44명(30%)이었다. 또한 초등학생 대상자를 4, 5, 6학년으로 제한한 이유는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겠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의 배경변인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배경변인별 분포 단위 : 명(%)

성별		과정별		시력정도별		장애발생시기별		계
남	여	초등	중학	맹	저시력	선천성	후천성	
69 (47.2)	77 (52.8)	46 (31.5)	100 (68.5)	68 (46.6)	78 (53.4)	97 (66.4)	49 (33.6)	146 (100)

<표 1>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학생 69명, 여학생 77명으로 여학생이 많았으며, 과정의 경우 초등학생 46명, 중학생 100명으로 중학생이 많았다.

시력정도별로는 맹 68명, 저시력 78명으로, 이들 분류는 국립특수교육원(1999)에서 제시한 맹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05 미만이거나 시야가 20도 이하인 학생을 저시력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상 0.3 미만 학생으로 했다. 또한, 시각장애발생시기별로는 선천성 97명, 후천성 49명으로, 시각장애 발생시기는 5세 이전의 시각장애를 선천성, 5세 이후의 시각장애를 후천성으로 분류하였다(Lowenfeld, 1975).

2. 연구 도구

본 연구와 관련 선행연구인 김하나(2009)의 ‘중학교 음악특기적성교육이 정규 음악수업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이경희(2009)의 ‘시각장애 중등부 학생의 음악수업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각장애학교 학생에게 적절하도록 수정·보완한 후, 맹학생 10명과 저시력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23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 내용

영역	설문 내용	문항 수	Cronbach's α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도	참여 여부, 참여 분야, 참여 기간, 참여 동기	4	.743
음악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인식	참여영향요인,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2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 음악수업의 영향, 교사의 교수방법, 음악교육과정 및 평가, 음악수업의 환경	17	.779
전체		23	.758

3. 연구 절차

전국 시각장애학교의 음악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취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설문지 배포 후 직접 설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200부 가운데 회수된 설문지는 168부이며,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146부(회수율, 73%)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처리

수집한 자료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 F -test 그리고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

1)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

배경변인		N	M	SD	<i>t</i>
성별	남	69	3.69	.97	2.15
	여	77	4.00	.79	
과정별	초등학생	46	4.20	.80	3.34***
	중학생	100	3.70	.90	
시력 정도별	맹	68	4.07	.76	2.85**
	저시력	78	3.61	.96	
장애발생 시기별	선천성	97	3.80	.96	1.07
	후천성	49	3.96	.74	
전체		146	3.88	.86	

p*<.01, *p*<.001

위의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음악수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음악수업에 관심이 있는지, 음악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등을 알아본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의 평균 차이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음악 수업에 대한 관심($M=3.88$)은 보통수준($M=2.5 \sim 3.49$) 이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M=4.00$)이 남학생($M=3.69$)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과정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M=4.20$)이 중학생($M=3.70$) 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시력정도별 비교에서는 맹학생($M=4.07$)이 저시력학생($M=3.61$)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장애발생 시기별 비교에서는 후천성 시각장애학생($M=3.96$)이 선천성 시각장애학생($M=3.80$)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전체적인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은 보통수준 이상이며 배경변인별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고, 맹학생이 저시력학생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학교 중학생과 저시력학생을 대상으로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음악교육 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손지혜, 2012)에서 4, 5, 6학년 모두 음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경희(2011)의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수업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박지연(2011)의 음악수업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인식도 조사 연구에서도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박보미(2009)의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음악적 취향과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음악교과는 학교 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없어도 상관없다(38.7%)’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으로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집중이수제 등으로 인해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음악수업의 영향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음악수업의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음악수업의 영향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		N	M	SD	<i>t</i>
성별	남	69	3.47	.91	2.75**
	여	77	3.85	.75	
과정별	초등학생	46	4.01	.75	3.51***
	중학생	100	3.52	.85	
시력 정도별	맹	68	3.88	.73	2.75**
	저시력	78	3.50	.90	
장애발생 시기별	선천성	97	3.66	.89	.31
	후천성	49	3.70	.76	
전체		146	3.70	.82	

p* < .01, *p* < .001

위의 <표 4>를 보면, 음악수업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감성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지, 창의성을 향상시키는지, 표현력 향상, 미적·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지 등을 살펴본 음악수업의 영향에 대한 인식의 평균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음악수업의 영향에 대한 인식(M=3.70)은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는 성별에서는 여학생(M=3.85)이 남학생(M=3.47) 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과정별에서는 초등학생(M=4.01)이 중학생(M=3.52) 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시력정도별에서는 맹학생(M=3.88)이 저시력학생(M=3.50)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장애발생시기별에서는 후천성 시각장애학생(M=3.66)이 선천성 시각장애학생(M=3.70)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인 시각장애학교 중등부 학생의 음악수업에 관한 인식(이경희, 2009)에서도 전체적인 음악수업의 영향에 대한 인식은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고, 음악수업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인식도 조사 연구(박지연, 2011)에서는 음악교육이 자신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전체 82.81%가 '보통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시각장애학교 학생들의 음악수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3) 교사의 교수방법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교사의 교수방법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배경변인에 따른 교사의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		N	M	SD	<i>t</i>
성별	남	69	3.81	.78	1.91
	여	77	4.05	.70	
과정별	초등학생	46	3.95	.81	.148
	중학생	100	3.93	.72	
시력 정도별	맹	68	4.05	.74	1.71
	저시력	78	3.84	.75	
장애발생 시기별	선천성	97	3.93	.79	.91
	후천성	49	3.94	.67	
전체		146	3.93	.75	

위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생님께서 맹, 저시력, 중복장애 등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하시는지,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가르치시는지, 선생님의 시범을 들으면 수업내용이 쉽게 이해되는지 등을 살펴본 교사의 교수방법에 대한 인식의 평균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교사의 교수방법에 대한 인식(M=3.93)은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 여학생(M=3.81)이 남학생(M=4.05) 보다 높게 나타났고, 과정별에서 초등학생(M=3.95)이 중학생(M=3.93) 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력정도별에서 맹학생(M=4.05)이 저시력학생(M=3.84) 보다 높게 나타났고, 장애발생시기별에서 선천성 시각장애학생(M=3.95)이 후천성 시각장애학생(M=3.94)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시각장애학교 중등부 학생의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이경희, 2009)에서도 교사의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이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알 수 있듯이, 교사의 교수방법에 대한 시각장애학생들의 인식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음악교육과정 및 평가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음악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배경변인에 따른 음악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		N	M	SD	<i>t</i>
성별	남	66	3.31	.72	1.31
	여	77	3.45	.60	
과정별	초등학생	46	3.43	.71	.49
	중학생	100	3.37	.64	
시력 정도별	맹	68	3.45	.64	1.11
	저시력	78	3.33	.68	
장애발생 시기별	선천성	97	3.34	.68	1.11
	후천성	49	3.47	.62	
전체		146	3.39	.66	

위의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음악시수에 만족하는지, 음악수업의 이론과 실기의 비율에 만족하는지, 음악과목의 평가방법에 만족하는지 등을 살펴본 음악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인식의 평균 차이는 전체적으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학생(M=3.45)이 남학생(M=3.31)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과정별로는 초등학생(M=3.43)이 중학생(M=3.37)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시력 정도별 비교에서는 맹학생(M=3.45)이 저시력학생(M=3.33)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장애발생시기별 비교에서는 후천성 시각장애학생(M=3.47)이 선천성 시각장애학생(M=3.47)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음악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인 시각장애학교 중등부 학생의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이경희, 2009)에서도 음악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인식은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음악수업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인식도 조사 연구(박지연, 2011)에서는 음악교육 과정 중 음악수업의 시수에 대한 질문에 전체 75.31%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고,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의 인식(손지혜, 2012)에서 음악수업의 시간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적절하다(38.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음악적 취향과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박보미, 2009)에서 현재 음악 수업의 양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적당하다(43.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음악수업의 환경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음악수업의 환경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배경변인에 따른 음악수업의 환경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		N	M	SD	<i>t</i>
성별	남	69	3.63	.78	.38
	여	77	3.74	.76	
과정별	초등학생	46	3.50	.79	.04*
	중학생	100	3.78	.75	
시력 정도별	맹	68	3.76	.75	.36
	저시력	78	3.63	.79	
장애발생 시기별	선천성	97	3.69	.78	.94
	후천성	49	3.68	.76	
전체		146	3.68	.77	

**p* < .05

위의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점자악보나 쉬운 음악관련 참고자료가 있는지, 음악수업을 할 때 음악실을 이용하는지, 음악수업에 필요한 악기는 충분히 되어 있는지, 음악수업에 필요한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등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본 음악수업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평균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음악수업의 환경에 대한 인식(M=3.68)은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M=3.74)이 남학생(M=3.3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과정별 비교에서는 중학생(M=3.78)이 초등학생(M=3.50)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시력정도별 비교에서는 맹학생(M=3.76)이 저시력학생(M=3.63)보다 높게, 장애발생시기별 비교에서는 선천성 시각장애학생(M=3.69)이 후천성 시각장애학생(M=3.6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시각장애학교 중등부 학생의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이경희, 2009)에서도 음악수업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고 음악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의 인식(손지혜, 2012)에서 음악 수업의 환경이 적절한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통이다(40.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음악수업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보통수준 이상으로 긍정적이며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학생은 음악실 활용이 잘되고 음악 기자재 및 악기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다고 인식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초등학생은 음악실이나 음악 기자재 및 악기가 덜 활용되고 있다고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부를 대상으로 음악실 활용과 음악 기자재 및 악기의 활용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

1)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t*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요인	구분	N	M	SD	<i>t</i>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	참여	102	4.07	.80	4.40***
	비참여	44	3.36	.92	

〈표 8〉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 (계속)

하위요인	구분	N	M	SD	t
음악수업의 영향	참여	102	3.88	.74	4.48***
	비참여	44	3.19	.90	
교사의 교수방법	참여	102	4.11	.67	4.46***
	비참여	44	3.52	.76	
음악교육과정 및 평가	참여	102	3.50	.67	3.56***
	비참여	44	3.12	.55	
음악수업의 환경	참여	102	3.82	.77	3.18**
	비참여	44	3.40	.71	
전체	참여	102	3.88	.73	4.01***
	비참여	44	3.32	.77	

** $p < .01$, *** $p < .001$

위의 <표 8>을 살펴보면,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의 평균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집단(M=3.88)이 비참여집단(M=3.32)에 비해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요인별로도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 음악수업의 영향, 교사의 교수방법, 음악교육과정 및 평가, 음악수업의 환경에 대한 인식 모두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 등 음악교육의 경험은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보면, 일반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김하나, 2009)에서도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집단(M=3.68)이 비참여집단(M=3.11)에 비해 음악수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중학교 음악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연구(김현주, 2010)에서도 음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음악의 필요성이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악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의 인식(손지혜, 2012)에서는 음악수업의 필요성, 음악수업 방법의 적절성, 음악수업의 환경, 음악수업시수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음악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분야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분야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분야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요인	피아노 (N=20)		현악기 (N=28)		관악기 (N=42)		기타 (N=12)		F
	M	SD	M	SD	M	SD	M	SD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	4.33	.63	3.79	.94	4.07	.79	4.29	.58	2.27
음악수업의 영향	4.05	.63	3.82	.81	3.80	.75	4.02	.27	.69
교사의 교수방법	4.32	.48	4.02	.82	4.07	.58	4.14	.86	.83
교육과정 및 평가	3.62	.70	3.45	.70	3.37	.63	3.89	.67	2.18
음악수업의 환경	3.75	.55	3.64	.72	4.05	.75	3.52	1.10	1.75
전체	4.01	.60	3.74	.80	3.87	.70	3.97	.70	

위의 <표 9>를 살펴보면,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분야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의 전체 평균은 피아노(M=4.01), 기타(M=3.97), 관악기(M=3.87), 현악기(M=3.74)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음악수업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관악기(M=3.9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일반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하나, 2009)에서 합창 또는 가창(M=4.00), 현악기(M=3.68), 관악기(M=3.67), 국악(M=3.58), 피아노(M=0)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 중학교의 경우 피아노는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 보다는 개인 레슨을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시각장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개인레슨 보다는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활동을 통하여 지도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시각장애학교에서는 1인1악기 체제가 활성화되어 ‘합창 또는 가창’에 참여하는 학생보다는 악기분야에 참여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음악수업의 환경에 대한 관악기 참여집단의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를 살펴 보면 대부분의 시각장애학교에서는 관악기를 중심으로 한 합주부를 운영하고 있다. 김홍대(2011)의 시각장애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한 ‘시각장애학교 합주부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합주부를 위한 악기구입문항에서 충분하다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다(33.3%), 매우 충분하다(16.7%), 부족하다(8.3%)로 악기구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합주부 악기상태에 관한 문항에서는 좋은 편이다(33.3%), 매우 좋은 편이다(25%), 보통이다(25%), 좋지 않다(16.7%)로 악기상태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학교에서 합주부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악기구입에 지원이 되며 양질의 악기 구입과 정기적으로 악기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시각장애학교의 관악기는 양호한 상태로 충분히 잘 갖추어져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3)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기간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기간에 따른 음악수업에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기간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요인	3개월 미만 (N=8)		3~6개월 미만 (N=15)		6~12개월 미만 (N=17)		12개월 이상 (N=62)		F
	M	SD	M	SD	M	SD	M	SD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	4.19	.80	3.97	1.14	4.03	.78	4.09	.72	.164
음악수업의 영향	3.56	.87	3.43	.73	4.00	.82	4.01	.66	3.22*
교사의 교수방법	3.83	.36	3.87	.59	3.92	.75	4.26	.67	2.78*
교육과정 및 평가	3.29	.70	3.27	.58	3.59	.79	3.55	.67	1.10
음악수업의 환경	3.72	.60	4.08	.47	3.79	.97	3.77	.78	.72
전체	3.72	.67	3.72	.70	3.87	.82	3.94	.70	

* $p < .05$

위의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기간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의 평균 알아본 결과, 전체적인 평균 차이는 참여기간 12개월 이상(M

=3.94), 6~12개월 미만(3.87%), 3개월 미만(3.72%), 3~6개월 미만(3.72%)순으로 12개월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의 평균차이는 참여기간 3~6개월 미만(M=4.08)이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의 교수방법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참여기간 12개월 이상(M=4.14)이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일반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하나, 2009)에서 전체적인 평균 차이는 참여기간 12개월 이상(M=3.77), 3개월 미만(3.76%), 6~12개월 미만(3.61%), 3~6개월 미만(3.54%)순으로 12개월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음악에 대한 관심은 '3개월 미만' 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결과의 일치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음악에 대한 관심은 처음 시작 단계에서 가장 높으며,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기간이 길수록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4)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동기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동기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동기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요인	음악을 좋아하고 다양한 음악활동 체험을 위해서 (N=32)		음악적 기능과 소질을 기르기 위해서 (N=22)		음악수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N=6)		타인의 권유로 (N=30)		기타 (N=7)		F
	M	SD	M	SD	M	SD	M	SD	M	SD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	4.39	.55	4.43	.73	3.42	.38	3.73	.88	3.21	.39	9.94***
음악수업의 영향	3.92	.59	4.18	.65	3.83	.61	3.71	.89	3.54	.96	1.78
교사의 교수방법	4.23	.71	4.29	.71	3.83	.66	3.94	.66	3.95	.59	1.50
교육과정 및 평가	3.63	.62	3.67	.83	3.44	.78	3.30	.60	3.29	.65	1.42
음악수업의 환경	4.03	.76	3.80	.83	3.71	.86	3.53	.71	3.50	.29	2.54*
전체	4.04	.65	4.07	.75	3.65	.66	3.64	.75	3.50	.58	

*p<.05, ***p<.001

위의 <표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 동기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의 평균차이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인 평균 차이는 음악적 기능과 소질을 기르기 위해서($M=4.07$), 음악을 좋아하고 다양한 음악활동 체험을 위해서($M=4.04$), 음악수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M=3.65$), 타인의 권유로($M=3.64$), 기타($M=3.50$)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에 대한 평균차이는 ‘음악적 기능과 소질을 기르기 위해서($M=4.43$)’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음악수업의 환경에 대한 평균 차이 또한 ‘음악을 좋아하고 다양한 음악활동 체험을 위해서($M=4.0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일반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하나, 2009)에서 전체적인 평균 차이는 음악적 기능과 소질을 위해서($M=3.76$), 음악이 즐겁고 다양한 음악활동 체험을 위해서($M=3.70$), 음악수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M=3.49$), 기타($M=3.04$), 타인의 권유로($M=0$)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강남, 강북 지역 중학교를 중심으로 방과 후 특기적성 음악 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학생 인식(윤애지, 2012) 조사에서도 음악특기적성교육의 참여동기로 ‘음악을 좋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음악교육 실태 조사 연구(문우리, 2011)에서 방과 후 학교 음악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에 관한 질문에 전체의 68%가 ‘음악을 배우고 싶어서’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음악적 기능과 소질을 기르고, 다양한 음악활동 체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음악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3.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에 따른 음악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인식

1)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식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

N(%)

하위요인	참여	비참여	전체	χ^2
다양하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	32(31.4)	16(36.4)	47(32.2)	4.06
지도자의 자질	11(10.8)	4(9)	15(10.3)	
참여자의 흥미 및 적극적인 태도	46(45.1)	14(31.8)	61(41.8)	
악기 및 시설	5(4.9)	5(11.4)	10(6.8)	
기타	8(7.8)	5(11.4)	13(8.9)	
합계	102(100)	44(100)	146(100)	

위의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참여자의 흥미 및 적극적인 태도(41.8), 다양하고 흥미있는 프로그램(32.2), 지도자의 자질(10.3), 기타(8.9), 악기 및 시설(6.8)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집단의 경우는 참여자의 흥미 및 적극적인 태도(45.1), 다양하고 흥미있는 프로그램(31.4), 지도자의 자질(10.8), 기타(7.8), 악기 및 시설(4.9) 순으로 나타났고, 비참여집단의 경우는 다양하고 흥미있는 프로그램(36.4), 참여자의 흥미 및 적극적인 태도(31.8), 악기 및 시설(11.4), 기타(11.4), 지도자의 자질(9) 순으로 나타났고 참여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일반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하나, 2009)에서 전체적인 평균의 차이는 지도자의 자질(52.2), 악기 및 시설(25.6), 참여자의 흥미 및 적극적인 태도(12.2), 다양하고 흥미있는 프로그램(10.0)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시각장애학교 학생들의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흥미와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음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다양하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음악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에 대한 인식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음악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음악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에 대한 인식

N(%)

하위요인	참여	비참여	전체	χ^2
장애특성을 고려한 지도교사의 체계적인 수업	33(32.4)	4(9.1)	37(25.3)	9.43
시설 및 악기의 확충	6(5.9)	3(6.8)	9(6.2)	
학생들의 관심 및 적극적인 태도	31(30.4)	21(47.7)	52(35.6)	
학생의 요구와 흥미에 맞는 프로그램	32(31.4)	16(36.4)	48(32.9)	
기타	0	0	0	
합계	102(100)	44(100)	146(100)	

위의 <표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음악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관심 및 적극적인 태도(35.6), 학생의 요구와 흥미에 맞는 프로그램(32.9), 장애특성을 고려한 지도교사의 체계적인 수업(25.3), 시설 및 악기의 확충(6.2), 기타(0)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집단별로 비교해보면,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집단의 경우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지도교사의 체계적인 수업(32.4), 학생의 요구와 흥미에 맞는 프로그램(31.4), 학생들의 관심 및 적극적인 태도(30.4), 시설 및 악기의 확충(5.9), 기타(0)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참여집단의 경우는 학생들의 관심 및 적극적인 태도(47.7), 학생의 요구와 흥미에 맞는 프로그램(36.4), 장애특성을 고려한 지도 교사의 체계적인 수업(9.1), 시설 및 악기의 확충(6.8), 기타(0) 순으로 나타나 참여집단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일반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하나, 2009)에서 음악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요소로 참여학생과 비참여학생 모두 학생들의 관심 및 태도(38.9)가 가장 필요하고 그다음으로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에 맞는 프로그램(27.8)로 응답하여 본 연구의 내용과 일치하였고 강남, 강북 지역 중학교를 중심으로 방과 후 특기적성 음악 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학생 인식(윤애지, 2012) 조사에서도 음악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점으로 '보다 흥미롭고 다양한 방과 후 음악프로그램의 종류'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시각장애학교 음악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의 관심과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시각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도교사의 체계적인 수업에 관한 연구와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에 맞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음악수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시켜 음악특기적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다양화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각장애학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요약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은 보통수준 이상이다. 그리고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고 맹학생이 저시력학생 보다 높다. 음악수업의 영향에 대한 인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고 맹학생이 저시력학생 보다 높다. 음악수업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높다.

둘째, 시각장애학교 학생들의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은 음악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집단이 높다. 참여분야별로는 ‘피아노’ 분야 참여집단이 높다. 참여기간별로는 ‘12개월 이상’ 참여집단이 높다. 참여동기별로는 ‘음악적 기능과 소질을 기르기 위하여’ 를 선택한 집단이 높다.

셋째, 시각장애학교 학생들의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에 따른 음악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인식은 참여영향요인에 대하여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집단은 ‘참여자의 흥미 및 적극적인 태도’ 가 높고 비참여집단은 ‘다양하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 이 높다. 음악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에 대하여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집단은 ‘장애특성을 고려한 지도교사의 체계적인 수업’ 이 높고, 비참여집단은 ‘학생들의 관심 및 적극적인 태도’ 가 높다.

2. 제 언

본 연구는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음악특기적성교육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음악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였다.

이러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후속 연구로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음악특기적성교육에 많은 시각장애학교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음악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참여유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음악특기적성교육의 내실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각장애학교 학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립특수교육원 (1999).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 경기: 국립특수교육원.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2008).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김선희 (2011). 시각장애학생의 합주활동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향.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김지현 (2005). 중학교 음악과 교육내용 및 음악 선호도 조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하나 (2009). 중학교 음악특기적성교육이 정규음악수업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홍대 (2011). 시각장애학교 합주부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문우리 (2011). 방과후 학교 음악교육 실태 조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보미 (2009). 청소년의 음악적 취향과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지연 (2011). 음악수업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인식도 조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지연 (2005). 고등학교 음악수업에 있어서 대중음악 활용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지혜 (2012). 음악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의 인식. 석사학위 논문, 경남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애지 (2012). 방과 후 특기적성 음악 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학생 인식.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경희 (2009). 시각장애 중등부 학생의 음악수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Lowenfeld, B. (1971). *Our blind children: Growing and learning with them* (3rd ed). Springfield, IL: Charles C Tomas.
- Lowenfeld, B. (1975). *The Changing Status of the Blind from Separation to Intgation*. Springfield, III: Charles C Thomas.

Analysis on Perceptual Change to Regular Music Class Students Join Extra Music Program in School for the Visually Impaired

Cho, Yun-jeong

Gangwon Myeongjin School for the Blind

Lee, Hae-gyun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aise efficiency of music class in the schools for the visually impaired by attracting students to extra music programs and searching for methods to introduce wider varieties and vitalities to the programs.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visually impaired students' perception about regular music class was higher than ordinary level by the study's background variables. Moreover, secondary students were more interested in music class than elementary level children, and also blind students showed higher interest in music class than those with low vision.

Second, as for the effect of extra music lessons on regular music classes at school, when compared with the others, students who have attended the additional music programs are shown to have higher level of perception in each variable such as students' interest, acquisitions from music class, instructor's teaching style, curriculum and evaluation, and learning environments.

Third, as for the awareness of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on extra music lessons, when they were asked about the motivation to take part in the lessons, student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extra programs mostly chose the item of 'Interest and participants' attitude', while those who have not attended the programs largely chose 'Variety of attractive programs'.

Key Words : school for the visually impaired, extra music programs

논문 접수: 2014. 05. 08 심사 시작: 2014. 05. 09 게재 확정: 2014. 06. 13